

문화

공연예술제 폐지 브랜드공연축제 신설

■광주문화재단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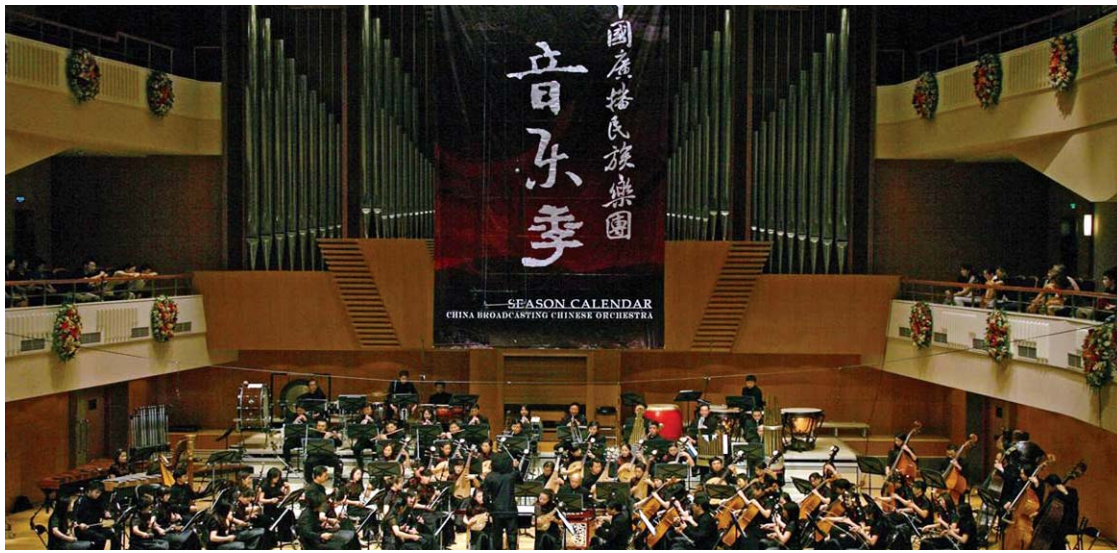
해마다 광주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예술축제들이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로 통합돼 운영된다. 광주문화재단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페스티벌 오! 광주'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의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없어지며 대신 브랜드공연축제가 신설된다. 전체 사업 예산은 13억 4000만원이다.

지역의 가장 큰 공연 관련 축제였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브랜드 공연 축제'(7월 4일~31일)로 전환됐다.

지금까지 공연예술제에 투입된 예산은 6억원. 하지만 올해는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이 1억 8000여만원으로 축소된 상태. 이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는 행사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예 방향을 전환했다. 공연예술제축제가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국내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 장이었다는 점에서 공연 애호가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올 브랜드 공연축제에는 국내 단체들만 참여한다. 국립·시립 예술단체 각 1작품, 광주지역 4개, 전국 2개 작품 등 모두 8작품이 공연된다.

현재 국립창극단의 '코리아 판타지'가 프로그램으로 확정됐다. 또 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최근 전국문예회화관련협회 가입하면서 개런티의 40%를 지원해주는 '지방문예



정음성국제음악제는 정음성축제 이름 바꾸고 올 7월과 10월 중국 하얼빈과 광주문화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정음성국제음악제 행사 모습.

지역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로 통합 진행

재단 제작 브랜드 공연 에든버러 축제 참여

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에 연극 '보이콧' 등 2작품을 신청한 상태.

광주에서는 지역 전문 공연예술 단체들이 무대에 올려왔던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모두 4팀을 참여시킨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며 선정된 팀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브랜드 공연축제 바로 전인 7월1일부터 3일까지는 '페스티벌 오! 광주-오픈 2011'이라는 타이틀로 재단이 제작중인 광주 브랜드 공연 작품들 무대에 올린다.

재단은 지난해 손재오(극단 깃들

상임연출)씨를 총연출자로 한 제작 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했다.

이 작품은 오는 8월 13일~19일까지 열리는 2011 에든버러 축제에 참여,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센터홀에서 공연된다. 예산은 약 6억원으로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에든버러 공연 이후 5개 자치구에서 순회 공연하며 10월 열릴 세계도시환경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에서도 선을 보인다.

정음성국제음악제는 정음성축제 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7월과 10월 각각 중국 하얼빈과 광주에서 행사

는 음악회, 학술세미나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5억원이다. 광주 음악회는 4일에 걸쳐 진행되며 광주 시립교향악단이 참여한다. 현재 정현수(전남대 교수)씨 등으로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구성, 작품 선정 작업중이다.

기존의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에서 이름을 바꾼 광주여성합창축제(10월20일~23일)는 사업비를 절반(9000만원)으로 줄여 경연 대신 순수 아마추어 여성합창단과 국·공립 합창단이 참여하는 축제 형식으로 꾸민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10개팀과 공식 초청팀 2개 등 모두 12개 팀으로 행사를 치른다.

12월 31일에 열리는 '광주-아듀 2011'은 송년음악회와 전시회, 바자회 등으로 구성된다.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



승효상 이원복 박하선 이자스민 베르너 사세 안톤 솔츠 은병수

재미 가득한 아시아 문화 탐구

광주MBC·교육대·광주일보 공동 문화강좌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17일부터 6차례 진행

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공개 강좌가 마련됐다.

광주MBC와 광주교육대가 공동 주관하고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문화 강좌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가 17일부터 5월 26일(격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아시아문화마루(콘서트홀)와 광주교육대 대강당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세계 문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시아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줄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개념을 깊이 심어주고,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길이 무엇인지 안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7일 승효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이 '민자의 미학, 아시아의 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31일 열리는 두번째 강좌에서는 만화 '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의 저자 이원복(덕성여대 교수)씨가 '동서양의 만남과 충돌,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부상'을 내용으로 인류와 미래 세계의 갈 길을 안내한다.

제3강은 세계의 오지를 탐방하며 이민족의 삶을 다룬 사진을 찍고 있는 제시해줄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개념을 깊이 심어주고,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길이 무엇인지 안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만나는 실�크로드의 여제와 오늘 이야기들 들려준다.

제4강은 '다문화가 힘이다'를 주제로 로 팔리온 이주여성 이자스민(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씨가 나선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아시아'를 주제로 열리는 제5강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한 베르너 사세와 안톤 솔츠(조선대 교수)가 아시아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대담을 나눈다.

마지막 여섯번째 강좌에서는 200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냈던 은병수씨가 '진통과 자연이 숨쉬는 아시아'를 주제로 강연한다. 은씨는 새로운 세계 문화의 기준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문화를 조명한다.

한편, 공개강좌와 함께 퓨전국악단 루트머지, 광주여성필하모닉·다문화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문의 062-360-212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 주니어콘서트 오디션에 참가하세요

클래식 음악도 선발... 17일까지 신청

유·스퀘어문화관이 지난해 이어 음악 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션을 개최한다.

제2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이 금호아시아문화재단과 유·스퀘어문화관 주최로 오는 4월,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나해에는 피아니스트 최현호(서울대 기악과)씨 등 모두 18명

의 연주자를 선발, 총 11회 콘서트를 진행했다.

'금호주니어콘서트'는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들의 심사를 거쳐 전도유망한 클래식 음악도도 선발한 후 데뷔무대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단독으로 독주회, 독창회 무대를 갖게 되며 피아노·현악·관악 등 기악 분야와 함께 성

악 부문을 신설했다.

오디션은 오는 4월 1일~2일에 열리며, 85년 이후 출생자로서 60분 이상 독주 가능한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준비곡목은 피아노, 현악은 소나타 1곡 전악장과 자유곡 1곡, 관악은 자유곡 2곡, 성악은 이태리가곡, 독일가곡, 자유곡 각 1곡이다. 오디션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다. 오디션 참가비는 7만원이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윽한 난 향기... 봄이 오나 봄니다

광주蘭대전 11~13일 시립민속박물관

봄이 오는 길목, 그윽한 난향에 취해보자. 광주에서 대형 난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난연합회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광주蘭대전(11~13일)과 한국난대전(18~20일)을 개최한다.

광주난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14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에서 '2011 광주蘭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난화, 광주난우회, 나누리난우회, 다사방난우회 등 14개 단체 회원들이 출품한 한국춘란, 야생화 등 300여 점을 선보인다.

화예품으로는 소심, 주금화, 주홍화, 자화, 복분복색, 두화, 원관화 등 17개 부문을 선보이며 옆예품으로는

중투호, 복분, 사피, 호피, 산란, 산란중투호, 단엽 등이 출품된다.

연합회는 출품작에 대한 예선, 본선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최상기 연합회 회장은 "사시사철 푸른 난은 절개를 상징하고, 머릿속이 상쾌해지는 듯한 은은한 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말했다. 문의 010-3634-107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해룡 출품 '홍화'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선임

<전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박만우(52) 전 광주비엔날레 전시 부장이 경기도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으로 임명됐다.

박 관장은 서울대 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1대학교 미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지난 2001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부장, 2005년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을 지냈다.

또 2007년부터는 조선대 미학미술사학과 겸임교수, 지식경제부 주관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 동반국 문화행사 현대미술 전 큐레이터, 에르메스 기업문화재단의 디렉터로 활동했다. 대통령 옥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주요 저서로는 '공공미술과 현대미술' 등이 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가발 |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 스릴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방 50만원 |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 검색

대산프리모가발

SCREEN GOLF

두암골프존

연중무휴 가격인하!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골프존 Real 18홀 17,000원 (추가부담 없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 시설 5개 룸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메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 윈스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두암골프존 |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원도로쪽 70m [옛날 5층]

예약 ☎ 234-9999